

## 국민지원금 지자체간 양극화 심화...형평성 논란

화순·함평·광양 “추가 지급” 결정  
단체장, 선거 의식...포퓰리즘 우려  
재정여건 열악...주민들 불만 고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풍족한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섰다.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도내 대부분 지자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일각에선 포퓰리즘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지자체들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에도 경쟁적으로 자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선거를 의식한 지원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166만 5,000명 중 157만명(94.4%)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소득, 특례 등 기준에 따라 13만 5,00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가운데 화순군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정부의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정부 지원금과 동일한 액수인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은 3,909명으로 별도 지원금 지급에 소요되

는 예산 9억 7,800만원은 군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별도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충남도도 26만 2,233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추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시민 모두가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군과 정선군이 예비비를 투입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양구군은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함평군은 다음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함평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에너지파크 개관**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에너지파크 전시관에 참석한 시민들이 모형자동차에 앉아 가상으로 자율주행 체험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군은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9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통교부세와 추가 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 소요 재원을 확보했다.

앞서 광양시도 지난 8월 소득, 나이,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전 시민에게 긴급 재난생활비를 1인당 25만원씩 지급했다.

지자체 별로 지원금 지급이 제각각이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말도 안되는 선정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화가 나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게 말이 되냐”며 “코로나로 힘든 상황을 감안해 추가 지급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현직 단체장들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와 맞물려 대표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한 보다 신중한 우선순위 검토와 집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가 잇따를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들이 이를 마냥 무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재정 상황

이 여의치 않은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용 재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 지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민들에게 추가 지급하려면 시군과 반반씩 낸다고 해도 도가 168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여건, 다른 시도의 움직임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결정할 문제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무등산 관광 수소 트램 추진...실현 주목

(노면전차)

환경훼손 등 반대여론 극복 관건

광주도시철도공사가 2호선과 연계해 무등산 관광 인프라로 수소 트램(노면전차) 설치안이 연구 중이어서 실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8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윤진보 사장의 주관하에 TF팀을 구성해 중장기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산수역과 연계한 무등산 관광 트레일 및 관광명소화 연구가 추진중이다.

TF팀은 2호선 산수역-총장사-국립공원 원효분소-늦게 삼거리-무등산 장봉재에 관광 인프라로 수소 산악트램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구간엔 친환경 수소 트램을 설치해 무등산 등반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소 트램 구간은 현재 군사도로가 이미 나 있어 트램 설치에 비용 등이 훨씬 저렴하게 드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이 구간엔 전기차나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수소 트램이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탐방객 포화상태와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오염, 안전사고 우려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윤진보 사장은 “평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해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2호선 핫플레이스 등 4대 중장기 프로젝트 연구가 진행중이다”면서 “수소 트램 도입은 친환경적이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비용 등의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진행중인 무등산 수소 트램 구상이 말 그대로 구상에 그칠지,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 TF팀은 수소트램 설치 구상 이외에도 유흥인구 밀집지역인 종합버스터미널과 농성역간 신교통망 구축, 금남로 4가역 유흥공간을 세대공감 핫플레이스로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 정부 “10월말~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완화 검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라면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

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대해 구체적으로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권 장관은 재차 “접종자, 완치자, 음성 확인서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또 (영업 제한) 시간도 현재 22시인데

24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약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보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 분류와 증상 악화 시 바로 이송하는 것,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 focus

호남권 첨단물류센터 들어선다 ▶2면  
백신특구, K-바이오 국가거점화 ▶4면  
학동 봉괴참사 치질 빛나 ▶7면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합니다

## 제12회 김대중정신계승 글짓기대회

고(故) 김대중(전)대통령의 애민·애족정신과 민주화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전남매일이 2010년 처음 마련한 「김대중정신계승 글짓기 대회」는 올해도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통일, 나라사랑 의미를 크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남매일과 김대중평화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제12회 김대중정신 계승 글짓기 대회」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회개요	대상	초등학교 재학생	중학교 재학생	고등학교 재학생
주제	- 친구에게 - 아름다운 우리나라 - 나의 꿈	- 통일이란 - 아름다운 우리나라 - 북한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 이산가족의 희망	- 나의 삶 나의 길 - 남북평화를 위하여 - 아름다운 금강산	
원고분량	5장 내외	7장 내외	9장 내외	

○ 작품은 순수한 창작 작품이어야 함.  
○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다른 작품과 유사 또는 모방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에 반영될 경우 영향을 최소화함.  
○ 중요작품은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일상적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최측에 있음.

**접수기간** 2021년 10월 11일 ~ 2021년 11월 12일 (11월 12일자 우편 소인 및 e-mail 유효)

**접수방법**

- e-mail 접수 : peace20090818@daum.net
- 우편 접수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6층 김대중정신계승 글짓기대회 담당자 앞
- 키오스크 접수 : jndnnews

**시상자 발표** 2021년 11월 29일 홈페이지(www.jndn.com) 및 해당학교에 공지(발표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시상식** 12월중 (장소 추후공지)

**시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별상
	트로피, 상장, 상금	트로피, 상장, 상금	트로피, 상장, 부상	트로피, 상장, 장학금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목포시장상, 전남매일사장상 (재)골드클래스 문화재단이사장상			

※ 시상식 진행 기일을 중정

**주최** : M 전남매일 김대중평화센터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목포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재)골드클래스문화재단